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해요!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

대한산업보건협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 체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4월 24일 충북 청주 오송사옥에서 행정안전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남부발전, 화재보험협회 등 4개 기관과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보편적인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을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승우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등이 참석해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안전체험교육 홍보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유년부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선진국처럼 대한민국도 어린 시절부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오송사옥으로 이사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실질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협회의 77년 역사만큼 다양한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안전보건 공공기관을 대표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3년 연속 함께하며 국민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안전보건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직접 찾아가는 대상·지역별 맞춤형 종합안전체험교육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지난 2012년 시범운영 시작해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안전체험교육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체험형·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종합안전체험교육이다.

지난해까지 총 204개 지역에서 63만여 명이 참여, 연평균 약 5만7천 명이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11월까지 26개 지역(21개 지자체, 7개 기업 참여)에서 51일 동안 운영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세종, 경남 사천 등 26개 지역에서 진행하며 지난해보다 참여 대상의 폭도 확대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등 어린이 중심의 참여 대상에서 학부모, 직장인 등 성인으로 확대한 것.

특히 어린 시절부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체험교육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2만 명 증가한 5만여 명을 목표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와 성인 등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필수 프로그램 10종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추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등 대상·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교육할 예정이다.